



건강과 수행

생활 속 자가 건강관리- 어지럼증②

현훈(眩暈) 증상과 실신성 어지럼증은 반드시 진료가 필요함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증상을 경험하는데 이에 대한 증상별 건강관리 방법을 지난 호부터 게재하였다. 지면 부족으로 어지럼증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 내용을 이번 호와 다음 호에 신도록 한다.

A: 두 번째 증상은 자신이나 주변이 빙글빙글 회전하거나 움직인다고 느껴지는 경우인데 어떤 것이 해당되니까?

B: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증상을 현훈(眩暈)이라고 합니다.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어지러우면서 구역감이나 구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는 머리를 움직일 때 증상이 악화되고 특정 동작을 할 때 유발되기도 합니다. 현기증과 이명 및 난청을 동반하는 메니에르병이나 반고리관의 돌이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기증 혹은 편두통, 전정신경망이 원인 이 되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빙글빙글 도는 현훈이 있는 경우에는 원인 감별 및 적당한 치료를 위해 의사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A: 세 번째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신성 어지럼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B: 네, 말 그대로 쓰러질 것 같은 어지럼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몸을 가눌 수 없거나 정신을 잃을 것처럼 아득해지는 느낌을 말합니다. 실신성 어지럼증의 경우에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잘 보이지 않게 되는데 뇌위야 증상이 호전됩니다. 주로 일어나는 상황은 서 있거나 오래 앉아있는 상황에서 일 굴이 창백해지면서 식은땀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질 때는 다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언급한 기립성저혈압에서도 이런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부정맥이나 울혈성 심부전, 혈관성 미주신경발작 등에 의한 심박출량의 감소

치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동반될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현훈이나 갑각 이상, 말하는 발음에 문제가 생기는 구음장애, 근력 약화, 서 있을 때 운동이 안 되는 운동실조, 시야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행동이 느려

지는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걸을 때 비틀거리거나 한쪽으로 기우는 증상이 나타날 때는 재빨리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료받으셔야 합니다.

A: 기분에 따라서 어지러울 수도 있나요?

B: 네, 많은 분이 이 문제 때문에 어지럽다고 병원에 오십니다. 머릿속이 빙빙 돌고 붓는 느낌,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섞여 있는 비특이적인 어지럼증을 말합니다. 이런 비특이적인 어지럼증은 호흡과 관련이 있으며 종종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20분이 이상 점차 증상이 심해지다가 약해지면 서 소실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장애, 공황장애, 광장 공포증, 우울증 같은 다양한 심리적 정신건강 의학적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승우 기자



- 목차
1. 선불가진수어록(仙佛家眞修語錄)

2. 진삼귀의처품(眞三歸依處品)

3. 무아경지품(無我境地品)

4. 여래비장품(如來祕藏品)

5. 겁수품(劫數品)

6. 감로해인품(甘露海印品)

7. 선지식품(善知識品)

8.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

9. 여래능력품(如來能力品)

10. 불법근본품(佛法根本品)

6. 감로해인품(甘露海印品)

(지난호에 이어서)

구도자들은 업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각고(劬苦)의 노력을 기울인다. 누구는 장좌불와(長坐不臥) 8년을 했고, 누구는 면벽참선(面壁參禪) 5년을 했다는 등 눈물겨운 수행을 한다. 그러나 성불(成佛)의 길은 멀고 험한 것.

여기서 우리는 감로(甘露)라는 용어에 주목해야 한다. 감로는 바로 성불하게 하는 약(藥)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석가 세존께서는 감로(甘露)를 내어 보이지 못했다는 것인가? 그렇다. 왜하면 성불한 제자가 한명도 없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다음 대목에서 역경원에서 해석을 안 한 부분이 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



해인

가. 개태사의 해인

(지난호에 이어서)

당시 김광영 보살의 장남 유전하는 일찍이 일본에 건너가 일본인으로 귀화하였고, 일본 여자와 결혼하여 육군 대좌로 근무하고 있었다. 김 보살이 사형 인도를 받고 수감 중일 때 일본에 있던 장남과 그 부인의 꿈에 김 보살이 동시에 나타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구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김 보살의 아들 유전하는 자기 어머니를 살려낼 묘안을 찾지 못하고 고민에 빠진 채 3일이 지났다. 3일 후에 다시 아들의 꿈에 나타난 김 보살이 “너의 장인을 만나면 해결할 길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당시 유전하의 장인은 일본 육군 중장으로서 육군사관학교 교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장인을 만나도 별다른 방법이 나올 수 없다고 판단한 유전하가 주저하고 있는 동안 다시 시간은 흘렀다.

세 번째로 아들의 꿈에 나타난 김 보살이 “네 장인에게 찾아가 천황을 알현하고, ‘그 여자는 미친 여자인데, 대일본제국이 한낱 광인을 사형해서야 되겠습니까?’라고 말하게 하라.”라고 자세한 방법을 일러주었다고 한다.

이에 용기를 얻어서 유전하가 자기의 장인을 찾아가 자기 어머니에 대한 사실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어머니를 구해줄 것을 간청했으며, 그의 장인도 그 말에 동의하고 천황을 알현한 다음 시키는 대로 했다고 전한다.

김광영 보살에 대한 재판 사건은 당시 유명한 사건으로서 당시 조선총독부는 해인(海印)과 그 사건의 자초지종에 관해 천황에게까지 보고할 정도였다고 전한다. 이 보고를 들은 일본 천황은 일본의 고고학자와 과학자들에게 해인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는데, 당시 일본의 학자들은 천황에게 해인은 비금비석(非金非石)으로서 별것이 아니라고 보고했다고 한다. 그런데 일본학자들이 천황에게 해인에 대해 보고하는 순간에, 때마침 지진이 일어나 황궁이 흔들렸다. 일본학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꺼림칙한 느낌이 있었던 해인(海印) 때문에 공연히 화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느끼고, 해인을 원래 있던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일본 천황에게 진언했다.

김광영 보살의 아들 유전하의 장인이 일본 천황을 알현했을 때는 이미 해인을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기로 조처한 직후였다고 전한다. 천황은 대일본제국의 천황이 일개 미친 여성을 사형시킨다는 것은 그의 권위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든지, 조선총독부에 명하여 즉시 그녀를 석방하라는 특사를 내렸다고 한다. 어쨌든 김광영 보살은 극적으로 사형을 면하고 석방되었다. 이처럼 김광영 보살의 기도사건은 한일 양국에 큰 파문을 일으킨 대단한 사건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극적인 이야기는 실제의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다. 김광영 보살은 사형선고를 받은 일이 없었

한국의 보물, 해인<50>



윤포산



개태사 청운각 현판

다. 다만 그녀는 조선 독립을 위해 기도했다는 혐의로 치안유지 방해죄로 김병소와 함께 강경 유치소에서 7개월 동안 감금되었을 뿐이다.

김광영 보살이 사형선고를 당하고 극적으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해인이 그만큼 신비한 보물이며, 해인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신기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믿어지게끔 하기 위한 전승 과정의 덧붙임이라고 생각된다.

해방이 된 후 1946년 10월 16일 김광영 보살의 요청에 따라 일제강점기 때 군산법원에 보관되어 있던 해인을 김구 선생과 몇몇 정치인이 당시 대법원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김용무(金用茂)에게 위촉·추심하여 다시 찾아 개태사에 갖다주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리고 김광영 보살은 둘러싼 해인을 개태사(開泰寺)의 들보 위에 비밀리에 보관하였다고 전한다.

몇몇 실존 인물들의 이름이 거명되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전하는 위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해인(海印)은 과연 무엇인가? 혹시 독자들은 이 해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바다 해(海)자, 도장 인(印)자라, 그렇다면 ‘바다의 도장’이란 말인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의문이 꼬리를 몰고 이어진다. 더욱이 흥선대원군과 함께 거론되는 정만인이란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 해인을 가지면 천하를 다스리게 된다는데, 무슨 보물일까? 해인사와 해인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또 조선 독립을 위해 해인에다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일본 천황에게까지 알려졌다다는 해인이 비금비석(非金非石)의 물건이라니, 도대체 무엇으로 만든 것일까? 해인의 주인은 어디에 있는가? 등등.

어쨌든 지금까지도 판결문이 엄연히 전하는 상황이니 해인에 얽힌 이 모든 이야기를 사뭇한 거짓말이라고만 쉽게 단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나. 포산스님과 해인

충남남도 논산군 계룡산 신도안 입구에 있는 개태사(開泰寺)에 있던 김광영 보살이 1945년 12월 당시 해인사(海印寺) 조실(住持)로 있던 윤포산(尹鰲山, 1901 - 1958) 스님을 찾아와 자기의 딸을 부인으로 맞는 조건으로 해인을 맡겼다고 전한다. 그때 김 보살은 천왕(天王)으로부터 “윤포산 스님이 장차 세계 대통령이 되실 분이니, 그분을 모시고 오라는 계시를 받고 찾아왔노라.”라고 자기의 이야기를 밝혔다고 한다. 이는 포산 스님의 제자가 한 증언이다.

그런데 강경법원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해인을 김광영 보살이 1946년 10월 16일에 찾아갔다는 전언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이야기에겐 착각이 있는 듯하다. 아마 1946년 이후의 일일 것이다. 윤포산의 또 다른 제자인 근하 스님의 말에 의하면 포산 스님이 개태사로 갔을 때는 단군을 모신 창운각(創運閣)의 입택일(入宅日) 직후였

다고 한다. 창운각은 1947년 9월 9일에 상량(上梁)을 했고, 같은 해 12월 8일이 입택일이었다.

윤포산 스님은 윤보선 전 대통령의 사촌 동생으로서, 19세에 금강산에 입산하여 당대에 선공을 드날리던 만공(滿空) 스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는 10여 년 동안 수도에 힘써 견성(見性)한 스님으로 알려졌다으며, 29세의 나이로 지리산 칠불선원의 조실에 부임하였고, 33세부터는 해인사의 조실에 있으면서 많은 스님의 존경을 받아왔었다고 전한다.

당시에 ‘해인(海印)의 주인이 되면 황제가 될 것이다.’라는 소문이 나돌았으며, 실제로 윤포산은 해인을 손에 넣은 다음 곤룡포를 입고 스스로 황제 행세를 했다고 한다. 윤포산이 황제가 되면 김광영 보살의 딸이 황후가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김광영 보살이 윤포산 스님에게 해인을 주었던 것이라. 어쨌든 김광영 보살은 1947년 12월 단군을 모신 창운각(創運閣)을 세운 후 전각의 대들보 위에 해인을 안치하였으며, 그 이후 개태사에 해인이 소장되어 왔다고 전한다.

포산 스님의 상좌였던 도일 스님의 전언에 따르면, 해인은 부처님의 도장인데 옥새가 임금의 도장인 것과 마찬가지로 한다. 그가 직접 본 바에 의하면, 해인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16센티미터 정도 크기의 정사각형 밑 부분에 불경(佛經)이 조각되어 있고, 도장의 위쪽은 십자가 모양으로 칠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한다.

그런데 포산 스님의 또 다른 제자였던 근하 스님에 의하면, 개태사의 해인은 크기가 가로 8센티미터 세로 73센티미터라고 한다. 인장 뒤에는 둥근 모양의 손잡이가 있으며, 열 십자(十字)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글자는 전자(篆字)로 16자(字)가 새겨져 있었는데, 네 글자씩 삼단 좌측부터 을자(乙字) 내지 만자(卍字) 형식으로 씌어져 있었다고 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도장의 뒷부분 손잡이 면의 십자선(十字線)과 전자가 합하여 만자(卍字)를 그린 것이다. 그리고 해인의 가운데에 있는 그림은 가로 54센티미터 × 세로 5센티미터로 뜻은 알 수 없었으나 아마도 ‘바다 해(海)자의 모습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김탁박사/신종교 연구가

∴_0_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 말씀하시기를 《22회》

하여 상세히 설명하겠다.

열반경 2권 애탄품(哀歎品)에 나오는 이야기다.

《열반경 권2(涅槃經 卷二)》

佛告諸比丘 善哉善哉 汝今能善諮問是義 爲自斷疑 譬如國王闇鈍少智 有一醫師性復頑瞋 而王不別厚賜俸祿 불교제비구 선제선재 여금능선자문시의 위자단의 비여국왕암둔소지 유일의사성부원은 이왕불멸후사봉록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이르시되 잘하고 잘하는 일이라. 네가 지금 이런 이치를 물어서 의심을 끊으려고 하는구나. 마치 어떤 임금이 어리석어 지혜가 없었고, 또 어떤 의사도 성품이 미련하였는데 임금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봉급을 후하게 주면서 모든 병을 다스리게 하였더니,

療治衆病純以乳藥 亦復不知病起根原 雖知乳藥不善善解 風冷熱病一切諸病 悉教復乳 是王不別是醫知乳好醜善惡 요지중병승인이약 역부부지병기근원 수지유약 부불선해 풍냉열병일체제병 실교

복유 시왕불발시의자유호추선악

그 의사는 한가지 우유 약만 쓰면서 병이 생긴 원인을 알지도 못하며 우유약을 쓰면서도 풍으로 생긴 병(風病)인지, 냉기로 생긴 병(冷病)인지, 열기로 인하여 생긴 병(熱病)인지도 알지 못하고 무슨 병이든지 우유 약만을 먹게 하건마는, 임금은 그 의사가 우유의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할 줄 모르는 것도 알지 못하였느니라.

復有明醫 曉八種術 善療衆病知諸方藥 從遠方來 是時舊醫不知諮受 反生貢高 輕慢之心 彼時明醫 即便依附請以爲師 諮受醫方祕奧之法 語舊醫言 부유명의 효팔중술 선요중병지제병약 중원방래 시시구의부지자수 반생공고 경만지심 피시명의 즉면의부청이위사 자수의방비모지법 어구의인

그런데 한 명의가 있어 여덟 가지의 술을 통달하여 가지각색 병을 분명하게 치료하면서 여러 가지의 처방과 약을 잘 아는데 먼 나라로부터 오게 되었다. 이때에 그전의 의사는 이 손님에게 물으려고는 하지 아니하고, 제가 잘난

듯이 업신여기는 마음만 내었으나 그 명의는 일부러 그전 의사에게 청하여 스승이 되어 달라고 하면서 의술과 방문의 비법을 묻고 말하기를

我今請仁 以爲師範 唯願爲我 宣暢解說 舊醫答言 卿今若能爲我 給使四十八年 然後乃當 教汝醫法 時彼明醫 即受其教 아금청인 이위사범 유원위아 선창해설 구의답언 경금약능위아금사사심팔년 연후내당 교여의법 시피명의 즉수기교

“나는 지금 당신을 선생님으로 하여 섬기려 하오니 제게 잘 가르쳐 주소서.” 하니 옛 의사는 “그대가 나를 위하여 48년(四十八年) 동안만 섬기면 그 뒤에 가르쳐 주리라.” 하므로 그 명의는 “그러하오리다. 저의 능력을 다하여 심부를 활가 하옵나이다.” 하였다.

**我當如是 我當如是 隨我所能當 給走使 아당여시 아당여시 수아 소능당금주사

**내가(석존) 마땅히 이와 같고 이와 같도다. 너희(석존의 제자)들이 나를 따

른 것이 능히 가짜 의사(석존)에게 조수(제자)로 48년간 따른 것과 같은 것이니라.

참고로 **표시되고 확대되어 있는 한문 16자의 부분이 역경원 측에서 번역한 한글 대장경에는 내용이 없이 빠져 있다. 위 불경의 요약은 석가모니를 48년간 따르며 스승의 정체와 현재 제자들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돌팔이 의사에게 48년간 부처님의 진리를 배운 게 없다는 것이다. 이 한문 불경은 우리가 흔히 말하길 남본 대장경이라고 하는 일본의 신수 대장경의 기록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려 대장경을 복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같은 내용의 불경이다.

그 이유는 신수 대장경을 만든 나라가 일본이며 과거 삼국시대부터 불경이 필라 대장경을 입수해 갔으며 해인사에서 목판 작업을 하여 인쇄된 영인본을 우리나라에 집요하게 요구하여 그들의 불경을 만드는 데 집중을 했으니 같다고 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이

앞장서 정부에 역경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정부지원을 받고 운허 스님이 번역을 맡고 법정 스님이 한글 작업을 하여 만든 한글 대반열반경을 보면 위의 16글자의 한문을 번역한 내용이 없다.

이것은 석가모니와 현재 불교계의 아픔이며 아쉬움이다.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불도를 닦는 것이다. 도를 수행한다는 것은 먼저 마음의 청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치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기본이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만 성경을 조작한 줄 알았는데 불교를 믿는 스님마저 경전을 조작했다.

이것은 기독교나 불교 역시 미래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그들 스스로 사이비가 되고 만 것이다. 특히 스님들의 스승인 석가모니의 바른 뜻과 신앙을 왜곡하는 큰 죄를 지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사이비 종교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사람들의 삶이 바뀌리라 본다. 석가모니는 스스로 부처가 아님을 밝히는데 그 제자라고 하는 자들은 스승의 뜻과는 다르게 그것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계속)*